

임실군, 한파 피해 복구 속전속결

수도관 동파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긴급 보수반 투입 복구 완료

임실군이 최근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수도관 동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전속결 복구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로 상수도관 파열 8건, 계량기 동파 10건, 가정 내 내부수도관 결빙 62건 등 226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이 최근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수도관 동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전속결 복구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군은 상수도 동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상수도팀 4명과 대행업소 10개소 등 긴급 보수반을 투입, 신속하게 긴급보수를 추진해 복구를 마쳤다.

또한 복구작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급수차량을 지원하고 생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계량기 동파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계량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긴급 보수반을 통해 배수지와 가압장, 상수도관 등 시설물에 대한 동파 예방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을 통

해 겨울철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수도 시설 문제가 발생하면 상수도과(640-2371)로 신고하면 긴급복구반의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한파로 인해 수도관 등이 동파

되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 등 대응조치와 사전 예방에 안전을 기해 줄 것"을 연일 강조했다. 아울러 "체설 취약 및 결빙지역 점검과 상수도 동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해 상황 및 대응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확대 지급

보국수훈자 추가 지원·수당 인상

남원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국수훈자 12명이 올해부터 보훈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됐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유족 등 단체별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급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매월 8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차등 지급에 따른 보훈단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1,420여명이 매월 8만원의 보훈수당을 받게되는데 가계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타지자체와 다르게 보훈수당 외에도 생일을 맞이한 유공자를 축

하하기 위해 해피데이 축하금 5만원과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단 6.25참전 유공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가유공자의 많은 분이 노령층으로 활동이 불편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으며, 그분들의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농기센터,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

순창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농가수 증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년 1회씩 8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는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무농약 인증을 받아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8년이 되기 2년(단년)에서 3년(다년생) 전에 유기 전환기를 신청해

야 연속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3월부터 신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를 마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버, 일반작물, 임산물 품목에 따라 40만원부터 180만원(ha당) 단가로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보형료는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친환경인증이 유

효한 농산물에 대해 연말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인증비 지원단가 5만원 인상으로 개인 35만원, 단체(5인 이상) 140만원(5인 기준)을 지원하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100만원(건당), 취급자 인증시 55만원(건당) 등도 신규로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2년 1회 주기로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으로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로나 우울 극복 심리상담 지원

남원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불안·우울 등 어려움을 겪는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로 시민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심리지원 상담 640건과 문자안내·리플릿 제공 등 1,800여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자가 격리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구축하여 비대면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통

한 심리지원, 정신건강 평가 등을 진행하며,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병원 및 심리치료센터로 연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1393/24시간) 또는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625-412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순례 남원시 보건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캠페인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심리상담 전화나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민원서비스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과 서비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 교육청, 기초 지자체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0년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총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대하여 기관 유형별 상대평가로 진행해 기관별 등급(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이 결정됐다.

순창군은 지난 2018년 평가에서는 '마' 등급을 받았으나 2019년 '나' 등급, 2020년 평가에서는 '나' 등급까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수직 상승하면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각종 민원처리 실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민원후견인제 적극 활용, 민원사무관람 정비 등 민원제도 운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A의료기관 관련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

남원시가 "A의료기관 관련, 전북 908번과 접촉한 2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남원 28번과 29번(전북 957번, 958번)은 A의료기관 관련, 전북 908번 접촉자로 1월 7일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12일 2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남원 A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시는 전북도에 핸드폰 GPS 및 카드사용내역 조회를 요청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모바일 임실사랑상품권 본격 출시

임실군이 새해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임실사랑상품권을 출시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출시했다.

그동안 지류 형태의 임실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무려 200여원을 발행,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면 상품권 구매를 꺼리고, 타지역 주민들의 구매와 사용의 불편함, 부정유통 문제 등 사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제도를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 해결, 이용자 휴대 편의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군은 모바일 상품권 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이용객이 많은 가맹점, 군민 및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 등 220여 개의 가맹점 모집을 완료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10% 할인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자는 구입처 방문이 필요 없이 간편한 모바일 인증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에 비해 유통 및 관리가 편리할 뿐 아니라 임실군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치즈 등을 할인하여 구매



할 수 있어 지역 자급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모바일 상품권은 누구나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정유통 방지와 사용의 편리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의 버팀목인 임실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출시하여 더 많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인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인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인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